

해외 표준화기구 동향

TTA 표준기획부

2015년 4월

(2015.03.23.~2015.04.2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목차

I. 국제 표준화 기구

- ▷ ITU-T SG3, 모바일머니에 관한 작업반 신설
- ▷ ITU, WSIS포럼 개최 예정
- ▷ ITU, 5G와 IoT의 유무선 통합 강조

II. 지역 표준화 기구

1. 미국
 - ▷ ANSI, 미국-브라질 표준 포털 수행계획에 서명
 - ▷ NIST, 자문위원회 2014 리포트 공개
 - ▷ NIST,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의견 요청
 - ▷ TIA, 글로벌 oneM2M 표준 관련 쇼케이스 개최
 - ▷ ANSI, 재설계한 표준포털 웹사이트 시작
2. 유럽
 - ▷ ETSI, 인도와 글로벌 ICT 표준화 포럼 협력 강화
 - ▷ ETSI, 양자안전암호화에 관한 산업규격그룹 발족
3. 중국
 - ▷ 중국, 전국표준화작업회의 개최
 - ▷ CCSA, 통신서비스표준화위원회의 첫 업무회의 개최
 - ▷ CCSA, 2015년 제1차 국가표준계획 발표
 - ▷ CCSA, LTE 광대역 클러스터 기술응용 심포지엄 개최
4. 일본
 - ▷ TTC, ITC 일본대표와 MoU 체결
 - ▷ 2015 일본/캄보디아 ICT 포럼 개최

III. 기타 사실 표준화 기구

- ▷ 파나소닉, IoT 개발을 위한 무상 포트폴리오 오픈
- ▷ ZigBee연합과 Thread그룹, 커넥티드홈 제품 개발을 위해 협력
- ▷ 가봉, 글로벌 ICT 규제 커뮤니티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I. 국제 표준화 기구

■ ITU-T SG3, 모바일머니에 관한 작업반 신설

2015년 3월 27일, 경제 및 정책 이슈를 다루는 ITU-T 연구반(SG, Study Group)3은 '모바일머니 서비스의 경제적, 경쟁적 측면'을 주제로 새로운 작업반을 신설했다. 새로운 작업반은 모바일머니 서비스의 원가 및 규제에 관한 접근방식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를 표준화하고 경쟁 지침과 비용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ITU-T는 또 다른 새로운 작업반을 신설했는데, 이 두 번째 작업반은 국가의 모든 주민들에게 ICT 서비스의 최소 레벨을 제공하는 개념인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에 관한 국제적인 측면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작업반은 보편적 서비스와 국제 광대역 인터넷 연결 비용 사이의 관계를 연구할 것이라고 한다.

ITU-T의 마지막 새로운 작업반은 통신과 ICT 분야에서의 규제기관의 행동을 가이드하는 구조 원칙을 수립할 것이다.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ITU-T SG3은 진행 중인 작업에 반영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적인 변형을 시작하기로 했다. SG3은 새로운 연구 부문으로 작업을 구성할 것을 제안해왔는데, 이는 국제 모바일 로밍, 상당한 시장 지배력 및 경쟁 정책 확인, 그리고 과도한(over-the-top) 서비스의 경제적 영향 등과 같은 분야에서 더 나은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SG3은 또, 통신 분야에서의 구러시아 연방국가통신협의체(RCC, Regional Commonwealth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s¹⁾)를 위한 새로운 지역그룹(Regional Group)을 설립했다. ITU-T 연구반 내의 지역그룹은 ITU-T의 국제 표준화 작업에 지역적으로 공헌할 예정이다. 그들은 특히 국제적 또는 지역적 표준의 개발 측면에서 SG3에게 중요하게 여겨진다. RCC 국가 지역그룹의 설립으로 SG3은 이제 6개의 지역그룹이 되었다.

출처: <http://newslog.itu.int/archives/871>

1) RCC(Regional Commonwealth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s) : 舊 러시아연방 국가를 주축으로 통신 분야 협력을 위해 1991년에 설립한 협의체로서 ITU의 주요 회의에 지역 차원의 의견 제안과 대응을 하고 있음

■ ITU, WSIS포럼 개최 예정

정보사회 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포럼은 '개발을 위한 ICT(ICT for development)'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단체들이 모여 매년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이다. 올해는 스위스 제네바 ITU본부 및 WIPO 본부에서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50명 이상의 정부장관을 포함하여 1200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고, 이들은 지속가능한 개발 트렌드와 건강, 교육, 여성의 역량, 그리고 환경과 같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를 다루는 ICT 계획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

출처: http://www.itu.int/net/pressoffice/press_releases/2015/Advisory-03.aspx#.VS21obkcR9A

■ ITU, 5G와 IoT의 유무선 통합 강조

ITU 전기통신표준화사무국(TSB,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의 이재섭 국장은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CTO 연례회의에서 5G와 IoT의 유무선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의 기술담당 최고책임자들(CTO, chief technology officers)은 다가오는 2020년에 ICT 표준화와 전기통신에 중요할 두 개의 연구 분야를 언급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혁신 필요성과 함께 5G 무선 모바일 시스템과 유비쿼터스(ubiquitous) 스마트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출처: <http://newslog.itu.int/archives/892>

II. 지역 표준화 기구

1. 미국

■ ANSI, 미국-브라질 표준 포털 수행계획에 서명

2015년 3월 24일, 미국표준협회(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의 조셉 트레틸러(Joseph Tretler) 부회장은 미국-브라질 자원 교류 표준 포털을 개발하기 위하여, 브라질의 국가표준조직(ABNT, Associacao Brasileira de Normas Tecnicas), 브라질 계량, 표준, 산업품질에 관한 국립연구소(INMETRO, Brazil's 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Standardization and Industrial Quality)와 수행계획에 서명했다.

ANSI의 표준 포털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을 위하여 2007년에 설립되었지만, 미국과 중국, 인도, 한국 경제에 자료를 제공하는 자원으로 성장했었다. 포털의 주요 목표는 목표 시장의 기술적 요구 사항에 대한 수출업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출처: http://www.ansi.org/news_publications/news_story.aspx?menuid=7&articleid=0eb8d305-af9b-4f82-902d-fe199cbc7ed0

■ NIST, 자문위원회 2014 리포트 공개

연방표준기술국(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외부 자문위원회는 4월 1일 의회에 사이버 보안, 첨단제조, 첨단통신, 재난 복구 및 안전에 관한 NIST의 연차보고서를 공개했다.

첨단기술의 시찰위원회(VCAT, Visiting Committee on Advanced Technology)는 NIST의 전략적 방향, 정책, 실적을 검토하고, 상무장관, 의회,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가치평가와 NIST 프로그램, 미국 과학기술 및 경제와의 관련성 등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암호화 표준과 가이드라인의 개발과정에 관한 2014년 리포트에서 개요를 서술한 표준에 대한 NIST의 대응을 인정했다. 또한, NIST의 장기연구, 협력, 기술이전, 및 여러 프로그램과의 확장서비스 같은 첨단제조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한다.

첨단통신에 관하여는, NIST가 상호운용이 가능한 긴급 구조 망(interoperable first responder network)을 발전시키고, 스펙트럼 공유 및 차세대 통신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측(metrology)과 측정(measurement)요구를 지원하는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추가적인 협력과 NIST의 새로운 우수프

로그램 센터(NIST's new Centers of Excellence program)를 통한 국가 우선순위 분야에서 의 외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NIST의 노력이 실려 있다.

2015년 2월, NIST는 지역사회탄력성 최고기관(Community Resilience Center of Excellence)을 설립하기 위해 콜로라도주립대학과 2000만 달러 상당의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위원회는 NIST 재해복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계획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 VCAT 회의는 2015년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게이더스버그(Gaithersburg)에서 열릴 예정이고 대중에 공개된다. 이전 보고서와 위원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NIST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출처: http://www.nist.gov/director/vcat/201503_vcat_annual_report.cfm

■ NIST,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의견 요청

2015년 4월 6일, 과학자들이 그들의 연구에 “빅데이터”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작업의 주된 노력의 일부로써, 연방표준기술국(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은 “NIST 빅데이터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초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했다. 일곱 권으로 된 빅데이터 기초문서는 국제 표준 사회에 미국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 1권: 정의(Definitions)
- 2권: 분류체계(Taxonomies)
- 3권: 사용 사례 및 일반 요구사항(Use Cases and General Requirements)
- 4권: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Security and Privacy)
- 5권: 아키텍처 백서 설문조사(Architectures White Paper Survey)
- 6권: 참조아키텍처(Reference Architecture)
- 7권: 표준 로드맵(Standards Roadmap)

빅데이터는 우리의 네트워크, 디지털, 센서레이든(sensor-laden), 그리고 정보중심 세계에서 데이터 홍수를 설명하는 단어이다. 빅데이터 컬렉션은 테라바이트(수 조 바이트)와 페타바이트(수천 조 바이트)로 측정 된다. 데이터는 소셜미디어에서 수집한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오디오에서부터 데이터 포인트를 1초에 4천만 번까지 제공하는 물리적 경험 등 까지도 포함한다. 새로운 기술은 데이터의 빠른 성장을 활용하도록 진화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사용은 혁신, 연료거래 등을 촉발하고 진보를 이끌 수 있다고, 상업과 학계 및 정부 지도자들은 합의했다. 방대한 데이터 자원의 이용성은 이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는, 우리가 어떻게 개입 초기에 잠재적인 유행을 감지하는지, 합성도 하기 전에 어떻게 새로운 재

료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 등이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접근방식을 압도하는 빅데이터의 능력에 대한 합의도 있다. 데이터의 볼륨, 속도, 복잡성이 증가하는 속도가 데이터 분석과 관리, 전송 등에서의 과학적 기술적 발전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NIST의 위창(Wo Chang) 디지털 데이터 관리자는 NIST의 빅데이터 목표 중 하나는 데이터 과학자가 기본 컴퓨팅 환경에 대한 걱정 없이 주어진 데이터 소스에 대해 분석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벤더 중립적이고, 기술 및 인프라 독립적인 참조아키텍처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정부, 학계, 업계 회원들이 모여 NIST 빅데이터 공공 작업반(NBD-PWG)을 형성했다. 작업반은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제안된 참조아키텍처, 그리고 표준 로드맵에 대한 정의, 분류체계, 주요 요구사항 등을 합의했다.

출처: http://www.nist.gov/itl/bigdata/20150406_big_data_framework.cfm

■ TIA, 글로벌 oneM2M 표준 관련 쇼케이스 개최

2015년 4월 9일, 미국 통신산업협회(TIA,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업계 선도적인 기업들이 새로운 글로벌 oneM2M 표준을 응용한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일 oneM2M 쇼케이스 및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쇼케이스에는 사물인터넷(IoT)과 스마트시티(Smart Cities), 스마트리테일(Smart Retail), 스마트농업(Smart Agriculture), 디지털 유전(Digital Oilfields),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s), e-헬스 등에서의 솔루션 개발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었다.

출처: <http://www.tiaonline.org/news-media/press-releases/tia-showcase-global-onem2m>

■ ANSI, 재설계한 표준포털 웹사이트 시작

2015년 4월 10일, 미국표준협회(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는 기존의 표준포털을 재설계하여 발표했다. 표준포털은 세계 무역을 위한 온라인 자원 및 교육 도구로서 중요한 표준, 적합성, 시장 접근성, 기업들이 미국 및 국제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무역 관련 질문들을 제공한다. 업데이트된 사이트(www.standardsportal.org)는 국제 무역을 함에 있어 꼭 알아야 할 정보에 관한 링크를 새로운 인터페이스와 함께 제공한다.

출처: http://www.ansi.org/news_publications/news_story.aspx?menuid=7&articleid=97f505e8-e64b-465a-9f68-1da4f666b1ca

2. 유럽

■ ETSI, 인도와 글로벌 ICT 표준화 포럼 협력 강화

ETSI와 인도의 글로벌 ICT 표준화 포럼(GISFI, Global ICT Standardization Forum)이 인도 ICT 표준과 관련된 교육, 홍보, 개발에 대한 MoU를 3월 17, 18일에 열린 ETSI총회에서 체결했다.

ETSI는 각각의 작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교환을 시작한 이래 GISFI와 협력하고 있다. ETSI는 “표준화 교육(Education about Standardization)” 분야에서도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TSI와 GISFI는 서로의 위원회에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다.

출처: <http://www.etsi.org/news-events/news/889-2015-02-press-standardization-experts-discuss-next-steps-in-development-of-standards-for-smart-energy-grids>

■ ETSI, 양자안전암호화에 관한 산업규격그룹 발족

ETSI는 2015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ETSI 첫 번째 회의에서 양자안전암호화(QSC, Quantum Safe Cryptography)에 관한 새로운 산업규격그룹(ISG, Industry Specification Group)을 발족했다. Infinity 주식회사의 마크 피켄(Mark Pecan)이 회장으로, CESG의 마이클 그로브(Michael Groves)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회의 중,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시작하기로 동의했다.

- 양자 안전 알고리즘 프레임워크(Quantum safe algorithmic framework)
- 암호화의 기본적인 특징(Cryptographic primitive characterization)
- 암호화의 기본적인 적합성 평가(Cryptographic primitive suitability assessment)
- 양자 안전 위협 평가(Quantum safe threat assessment)
- 양자 안전 표준 평가(Quantum safe standards assessment)

출처: <http://www.etsi.org/news-events/news/947-2015-03-news-etsi-launches-quantum-safe-cryptography-specification-group>

3. 중국

■ 중국, 전국표준화작업회의 개최

2015년 3월 30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북경에서 전국표준화작업회의를 개최했다. 공업정보화부의 차관인 화이진펑(怀进鹏)이 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심화개혁과 정부기능의 변화에 따라, 표준화작업은 공업정보화부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간다. 표준은 이미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제품 교환의 기준이며, 품질평가에 근거해서는 전체 산업을 성장시키는 발전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대체할 수 없는 기술 인프라, 기술지원, 기술가이드의 역할을 한다.

2015년은 개혁혁신 심화의 해 임으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은 <제도 체제의 개혁 심화에 관하여 혁신중심의 개발전략 구현의 가속화 의견>과 <표준화 개혁 프로그램>을 잇따라 공포하고, 표준화작업의 개혁목표를 명확히 했으며, 표준화 사업의 발전방향을 명시했고, 현존하는 표준화 관리시스템과 작업체계는 중요한 조정을 맞이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산업 및 통신 산업에서 전면적인 표준화 심화개혁의 요구사항에 적응해야하고, 산업발전 중에 존재하는 중요한 표준화 문제 등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제조강국과 인터넷강국을 위한 글로벌 전략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개혁혁신, 융합발전의 이념으로써 표준화작업체계의 개혁을 추진하고, 산업발전과 업종관리에서 필요한 표준의 제정과 실행을 가속화해야한다. 또한, 국무원의 표준화작업 개혁조치 실현, 기술표준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착수, 중국표준의 국제화수준 향상, 새로운 민생 표준홍보 모델 활성화, “십삼오(十三五)”²⁾ 표준화 개요 연구 등 여섯 방면의 작업에 초점을 맞춰, 중국의 표준기술 수준과 국제화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n11293907/n11368223/16526189.html>

2) 십삼오(十三五)계획: 중국 국가개발을 위한 13번째 5개년 발전계획(2016-2020). 중국은 1953년부터 5년에 한 번씩 국가 단기 계획을 수립하였음. 첫 번째 “오개년 계획”을 줄여서 “일오(一五)”라고 칭함. “십삼오”계획의 정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13번째 오개년 계획 강령”임. 십삼오 계획에 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았고, 십이오 계획이 끝난 후 실시될 예정임

■ CCSA, 통신서비스표준화위원회의 첫 업무회의 개최

2015년 3월 19일, 중국통신표준화협회(CCSA)는 북경에서 국가통신서비스표준화기술위원회(이하 통신표준화위원회라고 함)를 소집하였고, 첫 번째 업무회의를 개최했다.

중국 서비스업 표준화의 상태, 통신서비스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 현재까지 수행된 통신서비스 표준화 작업, 통신서비스표준화회의의 설립배경 및 기획준비과정, 통신서비스표준화위원회회의의 현장과 이후의 작업 구상 등을 소개했다. 주로, 고정 또는 이동 음성서비스,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 인터넷 접속 및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데이터통신 서비스, IP전화, 위성통신, 정보서비스 등의 통일된 서비스표준의 재개정이 필요하거나 표준화 및 관련연구가 필요한 방면을 다룬다.

출처: <http://www.ccsa.org.cn/worknews/content.php3?id=3112>

■ CCSA, 2015년 제1차 국가표준계획 발표

중국의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2015년 4월 9일, “<전력 사물인터넷 정보통신 전체 프레임워크> 등 83개 항목의 국가표준화 제정계획의 통지”를 발표했고, 현재 전국통신표준화기술위원회의 체계적 관리를 받고 있는 “자원개발성이 있는 사물인터넷능력 요구사항 구비” 등 19개 항목의 국가표준 제정계획 항목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http://www.ccsa.org.cn/worknews/content.php3?id=3114>

■ CCSA, LTE 광대역 클러스터 기술응용 심포지엄 개최

2015년 4월 8일, 중국통신표준화협회(CCSA)와 광대역클러스터(B-TrunC) 산업연합은 공동으로 “LTE 광대역 클러스터(B-TrunC) 기술응용 심포지엄”을 베이징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LTE 광대역 클러스터 지원 초고속 데이터, 음성 클러스터 및 멀티미디어 클러스터 관리 등의 업무, 정부, 공공안전, 중요산업 등 영역에의 응용, 서비스 지향 정부 건설 및 산업 정보화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출처: <http://www.ccsa.org.cn/worknews/content.php3?id=3115>

4. 일본

■ TTC, IIC 일본대표와 MoU 체결

TTC와 산업인터넷컨소시엄(IIC,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일본 대표는 2015년 3월 30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TTC는 IoT/M2M(Machine to Machine communication)이라는 인터넷 이용 기술과 관련된 정보 수집 및 표준화 작업을 각 전문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분야 내 미국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IIC는, 현재 일본 내에서의 소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IIC 일본 대표와 MoU 체결을 계기로, TTC 회원에게 정보 제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http://www.ttc.or.jp/j/info/topics/20150220/>

■ 2015 일본/캄보디아 ICT 포럼 개최

캄보디아 우편전기통신부(MPTC, 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의 요청에 따라, 4월 7일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서 “일본/캄보디아 정보통신기술(ICT)포럼 2015”가 개최되었다. TTC의 CEO 마에다 요이치는 아시아 국가의 표준화 격차를 해결하고 BSG 전문위원회³⁾의 관련 과제로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이번 포럼에서 개최사 및 기술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캄보디아 정보통신 진흥에 중점을 두고 캄보디아 정부관계자와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에게 일본의 정보통신기술과 통신제품을 소개했다. 캄보디아 정보통신 시장에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등 캄보디아가 안고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일본과 캄보디아의 정보통신 진흥, 육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포럼은 주일 캄보디아 일본대사관이 일본과 캄보디아의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일/캄보디아 유대증진사업”에 포함되고, 주일 캄보디아 일본대사관의 지원을 받는다.

일본 측에서는 민간 12개 업체의 대표와 주일 캄보디아 일본대사관, 그리고 총무성 행정관리국 행정정보시스템 기획 및 정보통신 국제 전략국 국제협력과를 포함한 3명이 참여

3) BSG(Bridging Standardization Gap) 전문위원회: 표준화격차해소 전문위원회. 2007년 아시아 각국과 협력하여 각국의 소외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ICT 활용 솔루션 보급 사업을 추진하던 “보급추진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한 후, 그 활동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표준화격차시정 전문위원회”에서 후속활동을 함. BSG위원회는 신흥국 소외지역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ICT 솔루션 시범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솔루션 이용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목표로 함 (출처: TTA, 해외 ICT 표준화 동향정보)

하였고, 캄보디아에서는 MPTC와 각 정부기관의 관료 및 민간기관 참가자가 254명 참여했다. 행사는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자정보 구축, 사이버 보안, 과소지역의 ICT응용프로그램, ICT표준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화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출처: <http://www.ttc.or.jp/maedablog/2015/20150413/>

III. 기타 사실 표준화 기구

■ 파나소닉, IoT 개발을 위한 무상 포트폴리오 오픈

2015년 3월 23일, 파나소닉은 기업들에게 로열티 없이 사물인터넷 생태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특허에 접근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임베디드 리눅스 컨퍼런스에서 파나소닉은 소프트웨어, 특허, 그리고 제품 생태계에서 얻는 경험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면, IoT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검증된 기기 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술은 다른 회사에도 적용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술은 현재 홈 모니터링 시스템, 태양 에너지, 그리고 소매업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Retail Application)에 사용 중이다. 오픈소스 코드는 파나소닉이 이달 초에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회사의 기여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유닛인 OpenDOF 프로젝트에 주어진다 한다. 이 코드는 또한 보편적으로 열린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앞선 IoT를 이끄는 비영리조직인 올신 얼라이언스(AllSeen Alliance)의 게이트웨이 작업반(Gateway Working Group)에 주어질 예정이다.

출처: <http://www.zdnet.com/article/panasonic-opens-royalty-free-portfolio-to-boost-iot-development/>

■ ZigBee연합과 Thread그룹, 커넥티드홈 제품 개발을 위해 협력

ZigBee연합⁴⁾(ZigBee Alliance)와 Thread그룹⁵⁾은 ZigBee Cluster Library가 Thread 네트워크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2015년 4월 2일 발표했다.

4) ZigBee Alliance: 신뢰할만하고, 비용 효율적이고, 저전력의 무선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면서 제품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는 기업들의 글로벌 협력체. ZigBee는 다양한 기기들이 가정이나 기업에서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무선 표준임

5) Thread: 직접인터넷(direct Internet)과 클라우드 접속을 통해 제품개발자는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는 즐기며, 제품은 쉽고 안전하게 저전력 무선 메시(mesh)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함. 검증된 표준을 사용함으로써, Thread는 제품개발자에게 신뢰할만한 저전력, 셀프힐링(self-healing), 그리고 보안네트워크를 제공함

ZigBee Cluster Library는 스마트홈과 다른 시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기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레벨 기능을 표준화한다. Thread는 무선 네트워킹 프로토콜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가정에서의 간단한 연결과 저전력을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낮은 대역폭과 IP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두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독립을 유지한다.

출처: <http://www.businesswire.com/news/home/20150402005199/en/ZigBee-Alliance-Thread-Group-Collaborate-Aid-Development#.VSdcBrkcR9A>

■ 가봉, 글로벌 ICT 규제 커뮤니티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2015년 4월 20일, ITU에서 매년 개최하는 'ITU 세계 규제자 심포지엄(Global Symposium for Regulators)'에 참가를 희망하는 언론 관계자들(Media Accreditation)에 대한 등록 신청이 시작했다. 올해 심포지엄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가봉정부의 초청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의 프로그램으로는 모바일 머니(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세계), 모두의 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디지털 통합과 e-접근성 촉진을 위한 혁신 전략, 네트워크 공유 비즈니스 모델, 디지털 에코시스템의 상호운용성 등이 포함된다.

출처: http://www.itu.int/net/pressoffice/press_releases/2015/Advisory-04.aspx#.VTXdurkcR9A